

기만적인 《쇄신》 놀음

최근 남조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 궁지에 몰린 《미래통합당》이 그 출로를 열어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쇄신》과 《변화》를 떠들면서 보수재건을 위한 《당혁신》 놀음을 매달리고있는 것이 그러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의 면모를 《극우보수》로 부터 《합리적인 보수》로 시급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정치리념을 나타내는 정당, 정책에 독립운동 역사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는 김구묘소를 찾아 참배한다 어쩌다 하면서 마치고 독립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 듯이 설레발을 치고있다.

정사적인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해 하는 행동들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은 친일에 뿌리를 둔 오갈대 없는 친일파정당이다. 이런 친일매국정당이 있어서 반일은 그대로 입에 율리리조차 말아야 할 단어였다.

이런 쓸개빠진 매국노집단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투쟁력사를 당의 정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다.

땅우를 걷는 짐승이 갑자기 하늘을 나는 새가 된것처럼 말이다.

백범 김구로 말하면 《미래통합당》의 먼 조상인 이승만당에 의해 백주에 살해된 사람이다. 어제는 저희들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무참히 살해하고 오늘에 와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싶게 배척이 그의 무덤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은 파렴치의 극치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항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일본상품배척운동을 할 때 《우리 일본》, 《지금은 반일이 아니라 친일을 해야 한다.》고 망발하던게 그리 멀지 않은 일이다.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속이려고 《반일애국》의 흉내를 피우지만 그 검은 속심을 못 알아볼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미래통합당》이 앞에서는 독립운동력사를 운운하지만 뒤에서는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파들을 틀어막을 민심의 요구를 정면거역하면서 과거 친일파들의 죄행을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다.

부리도 친일매국, 줄기도 친일매국인 《미래통합당》이 《쇄신》타령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그 체질이 달라질수는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림제의 신발》이라는 우리 민속사가 있다. 술집에 간 림제가 동인과 서인들이 따로따로 앉아 술을 마시는데 술이 떨어지지 않게 사주머니 지냈지만 제대로 운송되지 못한다고 한다. 《국회》는 열린지 수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운송되지 못한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은 더 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국회》를 또다시

장선출과 주요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이 뒤발목을 잡는 바람에 21대 《국회》는 열린지 수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운송되지 못한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개혁, 혁신》의 미명하에 그 무슨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광고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를 들고나

다고 또다시 양탈을 부렸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통합당》 것들은 여당이 《상생》과 《협치》를 버렸다고 고아대며 《국회보이코드》까지 선언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개혁, 혁신》의 미명하에 그 무슨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광고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를 들고나

랑수를 쓰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그에 반발하여 《좌파 2중대의 흥배》라고 비난하는 중진의원들이 다른 동료로 하여 《미래통합당》내부에 새로운 계파가 형성되고 그 후유증은 다음이 《대선》까지도 이어질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래통합당》 것들이 자기 무리의 리수를 차리기 위해 안락에서 날뛰고있으니 남조선 민심으로부터 《정신 못차린당》, 《정말차준당》, 《망한당》, 《해체할당》 등의 비난을 받고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수라장으로 만들어가고있는 남조선 정국을 19세기의 작가 림제가 보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야유했을가.

림제의 소설 《꽃피사》에서 나오는 글로 대신 적어 본다.

《반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꽃피 꿰달아 어질고 믿음직하고 공정하게 한다던 그 사람의 성정이 온전하고 바르다는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 명에와 육과 권력에만 얽매인자들이야 어찌 자기의 청상을 보진하며 바른길로 나갈수 있으랴》

본사기자 김정혁

지독한 파쟁군들

《식물국회》로 전락시켰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세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미래통합당》 것들은 차라리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라, 단 한개도 차지하지 못한다 해도 각종 《국정》 조사로 여당에 맞설것이라고 기업을 토해왔고 있다.

민심이 등을 돌린 부패보수당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장악하여 발표하였다고 한다.

남조선대학생들 극우단체들의 소녀상철거책동에 맞서 룡성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소속 대학생들이 6월 23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주변 소녀상 앞에서 룡성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6월 20일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의 뒤에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거는 등 소녀상철거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규탄하였다.

소녀상철거를 운운하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외국, 모독하는 극우단체들의 망동을 비난하면서 소녀상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철야통영을 벌일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녀상 테러하는 친일극우무리 규탄》이라는 글이 적힌 선전물들을 들고 소녀상을 지켜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사실들이 연속 드러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내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학대행위를 가한 가해자들이 바로 피해자들의 부모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초 충청남도 천안에서 리행용기방안에서 의식을 잃은 9살 난 어린 남자가 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어린아이는 병원에 실려가 며칠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밝혀진데 의하면 어린아이를 리행용기방안에 넣어 둔 당사자는 40대의 여성으로서 이복아머니라고 한다. 이복아머니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교양의 미명하에 어린아이를 리행용기방안에 넣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복아머니가 아이를 방안안에 넣고 그우에서 여러차례 위협기도 하고 겁탈기도 가방안에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그들은 《소녀상 테러하는 친일극우무리 규탄》이라는 글이 적힌 선전물들을 들고 소녀상을 지켜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이보다 앞서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9살 난 여자어린이가 이복아머니와 친어머니로부터 매일과 같이 교문과 같은 학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복아머니와 친어머니는 수시로 쇠막대기와 뿔베전조대로 어린이를 때렸고 시베르게 달근 지핀관으로 아이의 몸을 지적 화상도 입혀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목을 쇠사슬로 묶어 란간에 자물쇠로 고정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고 욕조에 머리를 담고 어 숨을 못쉬게 하는 등 지독한 잔혹한 학대를 주기적으로 반복했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에서 40대의 여성이 8살, 9살 난 자기 자식들을 옷을 벗긴채 산속에 내버려두는 악행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발견당시 아이들의 발바닥에는 심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들을 두고 언론들과 각계는 정녕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행위들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남조선의 사회적 악행

들라 착는 정녕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학대행위들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왕릉과 고분에 대한 날강도적인 도굴, 파괴범죄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을 요구하는 활동 진행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제일 동모들의 서명운동과 요청활동이 6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도교와 니시도교, 사이타마지역 조선학교 유치반관계자들과 보호자들, 총련일군들 그리고 일본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일본 내각부와 문부과학생, 후생노동성에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서명문과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제일동모들과 각계의 거들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교육차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이 지난해부터

일본의 시민단체들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항의

로동성에 조선학교 유치반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서명문과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제일동모들과 각계의 거들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교육차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이 지난해부터

일본의 시민단체들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항의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COVID-19》의 확산과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당국의 민족차별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타마》와 《일조우호여성 네트워크》는 량명으로 6월 19일 문부과학생에 요청문을 제출하였다. 요청문은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지원금지불대상에서 제외시킨 당국의 처사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제도적보장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사이타마》와 《일조우호여성 네트워크》 공동대표, 《일조우호여성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한 단체의 관계자들은 문부과학생 앞에서 진행된 제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미래통합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일제의 왕릉과 고분도굴벽벽의 엄중성은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재물에 대한 강탈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송두리채 없애버리기 위한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감행된 범죄라는데 있다.

일제는 왕릉을 비롯한 고분들에 대한 도굴을 통하여 조선의 풍부한 물질문화재부를 약탈하는 동시에 반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혈통과 명맥을 끊어버리고 획책하였다.

일제가 단군릉도굴시 무덤 안을 파피하고 란정하게 만들어놓은것은 조선의 역사를 인류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책동이였다.

참으로 조선의 왕릉과 고분들에 대한 날강도적인 도굴, 파괴범죄는 우리 민족의 넘파 전통, 문화와 역사를 없애버리고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감행된 천후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대죄악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일본어용학자들이 실토한것만 해도 1 000기가 달한다. 《당시 평양에 살던 일본인치고 랍탕고분에서 나온 옛 거울이나 질그릇과 같은것을 가지고있지 않았던 먼지리취급을 당하였다.》 이것은 평양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한 일본인이 1934년에 발표된 글에 기록되어있는 역사자료의 한도 막이다. 이 하나의 사실자료만으로도 당시 일제의 고분도굴벽벽은 어느 정도로 로골화되고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총독부 학부국 고척조사과 주임을 지낸 후지다로사쿠는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정박하여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하더라도 조선이 유일할체에 속한다.》고 실토하였다.

일제는 왕릉과 고분도굴벽벽의 엄중성은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재물에 대한 강탈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송두리채 없애버리기 위한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감행된 범죄라는데 있다.

일제가 단군릉도굴시 무덤 안을 파피하고 란정하게 만들어놓은것은 조선의 역사를 인류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책동이였다.

참으로 조선의 왕릉과 고분들에 대한 날강도적인 도굴, 파괴범죄는 우리 민족의 넘파 전통, 문화와 역사를 없애버리고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감행된 천후에 용납 못할 전대미문의 대죄악이다. 본사기자 주광일